

이라 故로朝鮮樂은全히文學의內容을버서나지못하고또그것을使用하기도禮式의一科即禮儀의附屬物처럼取扱하여온것이다。이점으로洋樂과朝鮮樂을比較하면天壤의異가自在하다할지르다。

그런데音階에있어서는 宮·商·角·變徵·徵·羽·變宮 七音을用하니 이는洋樂의do re mi fa sol la si와同하고 十二律이라한것은音自身의高低名稱으로서ceder gab와 그의變等과同性質노된것이요 音의振動數에있서도 古代에는何如하던지現今에는西洋及大同하여朝鮮樂譜를洋樂譜로譯作하기容易하다思惟하노라。그七音의旋法을말할진대現今洋樂旋法과小異하다。古代피다고로스 스케일의六十律과同하여西洋古調와同機이다。그점으로그作曲法은西洋의旋律構造式과近似하다。七音十二律도亦是數理上公式으로하여協和音을求하되것인바情의이아니오理智의으로된지라 오직異感을生하기는現代西洋과차지그組織이複雜하고規模가雄大하지못하여 리르투스(Rythm)의變動이極히單純하고小數의音으로曲調를反覆하니 이는古代의作曲旋律이라한다그러나此亦洋樂의古曲과無異하니 洋樂의古曲即宗敎樂曲은 리르투스가極히單純한것이多하다。

樂器는種類가多하여現在雅樂部에殘存한것으로말하여도五十數種이된다。其中純朝鮮樂器라할것은橫笛 玄琴 伽倻琴 鄕琵琶等小數이요 支那의적이多하며其中에 삼백산의大王의遠征으로因하여洋樂器가中央亞細亞等地에媒介되어支那에入한것도있다故로洋琴으로보아도 西洋 왓시리아國의 델시머(Dulcimu)등이分明하니 波斯의델시머는洋琴과彷彿한것이라 現在西洋各國에도 델시머가잇스니 現在피아노는即델시머의發達된것인듯하다。樂譜로말하면舊譜와現在實奏하는樂과는 다르다그러나余는史的考察엔未及하여말할것이아니오 오직形式上觀賞으로만말하면現今實奏하는樂曲도價値가 업다할수업다。

現存樂曲은文學上內容은貧弱하여지고오직音響의旋律律인때 심포닉式으로되야西洋의交響樂과比肩할수잇는性質을備하여야있다。그和聲의組立法은現代佛蘭西印象的 進하여未來派의作曲者의것과 一致되는感이있다。普通人士가朝鮮樂을聽할時는厭症이날것도잇스나그러나音樂의專門家가드르면極히高尚하고古雅하여 마치大海底에잠긴老龍이胸中에無恨한情思를舒하는듯한聲도잇고 엇편것은仙女가紫雲

을하고 그엇년樂器를弄하는듯한玄妙不可思議한深奧한趣味를起한다。此二派의感을노코보면 一은情的이오他一은知的이라 此二派外에立하여一次嚴正히批判하면一種新意見を陳述할수잇는것이다。

大略말하면右에言함과如히 심포닉式의味가있다 할지오 그內容을歷史의으로말하면退步의狀態인은勿論이오 退步된이만한價値도不無하다하노니此의詳細한說明은後H에讓하고이만그치노라。

同志에게

哲學博士 白性郁

十年을一期로하여 다시同志를 一席에모이게한다는것은 무엇보다快事일것이다。尤히過去를 돌아보아서 萬般의新氣分이 이로써源泉을상앗다면그얼마나偉大할야? 그것이만흔曲節을지내서 보다더完全한基礎下에서 同志의鍛鍊場을構成하여그中에서 여러분과 同居하게되는 過分한知遇를얻게된 나이엇다면 그얼마나 快事일야?

당신들의學術研究가 輿境으로 方向을가지고저할때마다 나의不敢을 늦기였음이 한두번이아니였으며 당신들이 新思潮를 理解하고저할때마다 材料를供給하고저 하였는것은 나로서 甘心한과이다。그러나 時間에餘裕는 一身兩役에잇는나로

서 당신들의要求에 符合지못하게되였을時에 나는참으로 앞았노라。 이와가치 決定한 心情에다가 休課中 당신들中으로서 慰安의通信을 바들때에 그얼마나 辛酸하였스나! 이點에잇서서 사랑하는 당신들이니 勿論나를理解하고 容恕할줄밧는다。

나는 잠간이나마 당신들을 떠나는形式에잇을때에 당신들의將來를爲하여 努力하고저하였다 그와같은心情이였슴으로 一言에理解가업시 한일에對하여 당신들은 諒解하고저하고 同情으로臨하였든態度를 나는 잘理解한다。나는이點에잇서서 당신들의 人格的崇仰이 저절노생기고 同時

에 당신들의 全意志를 나는確實하게 代表할수 잇스리라自信한다。

당신들은 外面으로 보아서 極히溫順하다 및 天然스러운 무엇에比할만치 아무遜色이업드 라 그러나 나는確實히 당신들이 碌碌지안이한 志氣를 알고심했다。 오직付托하고 심은것인즉

佛專昇格에對하야

To be Gentleman!
庶務係 曹 學 乳

이와같은말을두고서 먼將來에 미를만현 同志 가 어는구석에서 자라나고 壯健康히 잇는中에 全人類的良心에依한 聖者의精神을 發揮할使命이 遺憾없이 實行할 當心들이기를 바란다
十二月四日 壽松洞에서

人材養成을覺悟하야 多年間懸案이되엿는佛敎專修 學校가 今年부터開校케되엿슨은 不저진것이 香遺憾 이나마我朝鮮佛敎界의 將來를爲하야 甚히慶賀하며 또 朝鮮社會를爲하야 寺도기뻐하는바이다。 勿論이機 關이朝鮮佛敎界의 最高學府이니만 長期待함이 만홀을 信하는것이다。 그러나學校自體를 挽回願할때에는 一種의遺憾이 慶賀와 期待를 伸하야 擡頭되라한다。 그 是은 現下敎育制度로本學校의 唯一한 生命으로看做되 는 昇格問題이니 아마이것은 同一한 敎徒로는 더욱히 共鳴될바르思하노라。

仄聞한바에依하건대某當局者는말하되「目的이布 敎師養成이닛가昇格하는것이그다지不必要하다」고 남이야알든물으론 알것업시單純한實力主義、獨生 主義、超越主義로만나아간다하면이것은 尙無相의行 士라할것이니그말도그리할듯하나世上事가어대그리 한가요。 淸濁、善惡、優劣、長短의相對性으로表現 되는것은人間生活上不得已하며또한必須의條件이니 이것은아마周到치못한片見에서吐出된言句인가하노 라。
나는이제昇格을어대까지切實히主唱하며 늦기는

바란호나紙面의關係上다음세가지로簡單히말하고 지하노라。

첫재 또는卒業者活用問題이다。 單一한布敎所養 成에만目的한다할지언理論보다實際上으로年々히增 加되는卒業生을모다活用할만한布敎機關이 今일에準 備되어잇는가。 從後로該機關의擴張될것은可히想像 할餘地가잇는것이며또한잇서야하겠지만은 아모리 하야도機關은어느程度의限度가잇는것이요人材는限 度가업슬것이다。 그러면有限度의機關에서無限度의 人材를얻지다收容할것인가 그만흔剩餘數의處置方 法이果如何。 그의生活을保障할만한其他의 特殊特 殊方針이잇는가또는잇슬가하는것이 疑問이다。 한 쪽一般의方面에應用될만한資格을養成키로目的한敎 育機關으로變換치안호면어려方面으로보아서到底히 아니되겠슬을切實히늦기는바이다。

둘재로는 學生募集問題이다。 敎務院理事會에서 決議하기를各寺出資額에比例하야 每年定員을記送하 기로하엿다한다。 이것도相當한考慮를要한것이라할 지나말하자면窮策이라하겠다。 아모리그와갓치決議 가되엿지만은實現에들어서는어려가지複雜한問題로 永久히繼續케는不可能의事實이라하겠다。 또는一

般으로보아서도누구나無資格한學校에志願할자가업 슬것이며設使잇다하드래도無資格한入學者로無價值 한學校가되고말것은事實이다。 그러면內으로外으로 學生의求路가共斷된空虛의建物만으로將次부엿을할 것인가。

셋재 또는敎理弘布問題이다。 設使寺刹學生이每 年增加된다할지라도單純한徒弟養成으로만目的한다 할지면 너무나偏狹한敎育機關이라한다。 相當한資 格을具備하야一般적으로入學의路를開示하는것이敎 育機關自體로보아서도妥當한것이며또는歸이敎理를 研鑽發揚케하는眞實한布敎機關이될것이라하노라。
以上여러點을보아서 어대까지昇格을主唱하는바 이다萬一그러치못할지면寧히學校란名義보다特殊講 院을意味한부상看板을벗치고싶다。 要컨대佛專은 朝鮮佛敎界에不可無의設設한最高學部의機關이며各 寺刹의期待와誠意로聚凝된儼然한建物인즉 다시一 步를進하고赤誠을添하야財團을增額하야價値잇고 完全한機關으로써내기를바라는바이다。

最後로話題되는것은增額問題이다。 今일까지頭痛 으로알론六十萬圓財團이오히려未整된그우에또다시 부상힘으로增資가될것이며骨湯을먹이나하는가하는